

남구, '여름방학 이색 독서교실' 운영

과학·요리·전쟁사 주제로 관내 구립도서관 4곳서 진행 5~9일, 초등생1~5학년 참여

광주 남구 구립도서관 4곳이 여름방학을 맞은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한 여름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1일 남구에 따르면 문화정보 도서관과 푸른길 도서관은 오는 8월 5~7일 3일간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문화정보 도서관에서는 이 기간 '우리 가치(같이) 지켜요'라는 주제로, 책을 통해 생활 속 가치를 만나면서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20명이 함께한다. 독서교실 첫날에는 게임과 토론을 통해 가치의 정의를 배우며, 둘째 날에는 책과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가치 찾기 활동을 펼치면서 본인이 찾은 가치를 초인중에 담아 현관문에 내걸 수 있는 풍경 만들기 체험도 진행된다.

셋째 날에는 동시를 작성하면서 생활 속 가치 실천 방법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해 학습한다. 푸른길 도서관에서는 같은 기간 '에너지 교실! 무얼 타고 갈까?'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학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초등학교 2~3학년 20명은 게임과 글라이더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힘과 에너지에 대해 탐구하며, 잠수함 및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통해 부력 원리와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 즐거운 상상의 시간을 갖는다. 청소년 도서관에서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초등학교 2~4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맛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펼친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아이들의 오감 발달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은 그림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재료 탐색 및 또래 아이와 요리를 만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남구 구립도서관 4곳이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해 '여름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2023년 여름 독서교실 현장. **광주 남구 제공**

을 배울 예정이다. 효천어울림 도서관에서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초등학교 3~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별거벗은 세계사 사건편'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러일전쟁과 청일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등 세계 전쟁사의 흐름과 산업혁명 및

근대과학 기술의 발달이 전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여름방학 기간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립도서관별로 이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nilbo.com**

'찾아가는 수어 교육' 운영 광산구,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광주 광산구는 한국 수어 강사로 양성한 청각장애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찾아가는 수어교육'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수어교육'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 '한국수어 농인강사 양성과정' 중 하나다. 전문교육을 마친 청각장애인이 강사가 돼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수어를 교육하며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취지로,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 수어교육원, 광산구농아인센터와 협력해 추진한다. 수어 교육은 2차시로 운영한다. 1차시는 수어의 이해, 농아인에 대한 예절 등을 배우고, 2차시는 수어로 단어 끝말잇기, 자신의 꿈을 수어 해보기 등 40분 과정으로 진행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수어 교육'은 9월~10월 중에 진행된다. 수어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9월14일까지 광산구 교육도서관과 평생학습팀(062-960-8283)에 문의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



건강 취약계층 방문관리 서비스 서구, 폭염 대응 물품 지원 등

광주 서구가 가마솥 무더위에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500가구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서구는 31일 건강관리 전문인력들을 현장에 파견해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는 건강수칙 안내문, 부채, 쿨패치, 쿨스카프, 벌레기피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배부하고 경로당 등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고 있다.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효 시 예방 수칙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하루 100건의 전화와 650건의 문자를 통해 폭염, 온열질환 예방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구는 1일부터 2일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검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아 기자**

'5대 분야 혁신과제' 수립 북구, 26개 과제... 절차 개선 등

광주 북구가 청렴하고 효율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5대 분야 26개 조직 혁신과제'를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직 혁신과제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유연한 업무 방식 정착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혁신과제는 북구가 지난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을 바탕으로 업무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직원 간 수평·자율적인 문화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수립됐다. 이에 따라 소통과 존중이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업무절차 개선 △지식 행정 활성화 △공간혁신 △불합리한 관행 해소 △일과 삶의 균형 유지 등 5대 분야와 26개 세부 혁신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 업무절차 개선 분야는 업무 자동화 기능 확산, 공통업무 절차 개선, 인계인수 가이드라인 제작 등 5개 과제 실천을 통해 단순·반복적 취합업무와 보고서 편집 업무 간편화를 도모한다.



광주 북구가 청렴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5대 분야 26개 조직 혁신과제'를 수립했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북구 제공**

동구, '백세대학' 개강...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 지원

사회·경제·안전·건강 등 분야 6회 진행... 복지센터서 수시 접수

광주 동구는 지난달 30일 65세 이상 어르신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백세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백세대학은 어르신들의 황혼기 인생 길잡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별 전문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간이다. 보다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개강식은 1교시 박영석 강사(50플러스시니어복지연구소 이사장)의 '노년기 문화생활'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2교시 성민하 강사(동구실버노래교실 강사)의 건강 레크레이션이 진행됐다.

식전 공연으로는 올해 처음 진행하는 노인 여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백세밴드'의 우쿨렐레, 오카리나 연주가



광주 동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백세대학' 개강식에 참여해 노년기 문화생활 강의를 듣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펼쳐졌다. 65세 이상 동구 거주 어르신들로 구성된 백세밴드는 5개월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백세대학에 입학하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백세대학 통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한편 총 6회차로 진행되는 백세대학은 △노년기 사회적응(8월27일) △노후 경제관리(9월10일) △교통안전 교육(9월24일) △노년기 건강관리(10월22일) △황혼기 긍정 인생설계(10월29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접수 가능하다. **김은지 기자**